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마콘도로 돌아가다

우석균

콜롬비아 소설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Gabriel García Márquez)가 지난 4월 17일 멕시코시티에서 지병으로 타계했다. 대가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그림과 사진으로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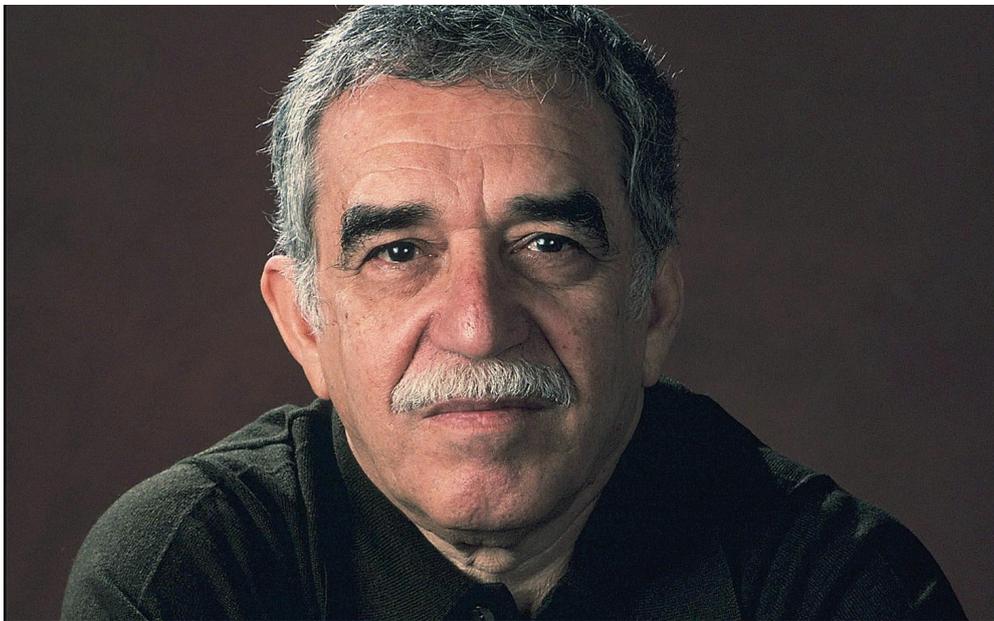




사진 1. 1982년 노벨문학상 수상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라틴아메리카 문학은 물론 세계문학사에 남긴 족적은 가히 기념비적이다. 소위 ‘봄 소설’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라틴아메리카 소설을 세계문학의 반열에 올려놓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작가이자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독특한 문학 세계를 구축하였다. 그래서 1982년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사진 2. 아라카타카(Aracataca) 지도

외조부모에게 맡겼다. 『백년의 고독』에서 마콘도를 창건한 호세 아르카디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1927년 3월 6일 콜롬비아 북부 카리브 해 연안의 아라카타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부모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하면서 세상도 채 못 된 가르시아 마르케스를

오 부엔디아의 결투 일화나 아우렐리아노 대령이라는 독특한 인물에 영감을 준 것이 외조부였고, 외조모가 들려준 옛날이야기가 이야기꾼으로서의 가르시아 마르케스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사진 3 보고타 사태(Bogotazo)

1947년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수도 보고타에 있는 콜롬비아국립대학 법학과에 입학한다. 하지만 이미 문학에 빠져 있었던지라 공부는 뒷전이였다. 문학은 쾌활하고 자유분방한 전형적인 카리브 인이었던 그가 폐쇄적이고 차가운 분위기의 보고타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원천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9일 보고타에서 극심한 소요 사태가 발생한다. 호르헤 엘리에세르 가이탄(Jorge Eliecer Gaitán)이라는 대중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인 암살로 촉발된 보고타 사태는 이후 약 10년 동안 거의 내전 수준의 ‘폭력 시대’(La Violencia) 시발점이 되며, 가이탄의 지지자였던 가르시아 마르케스와 문학 세계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사진 4. 바란키야 그룹(Groupo de Barranquilla)

보고타 사태로 보고타를 떠난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이후 카르타헤나, 바란키야 등의 카리브 해 연안 도시에 주로 거주하면서 창작을 계속했다. 문학, 저널리즘, 영화, 회화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으로 지방문화의 산실 역할을 한 ‘바란키야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사진은 1950년에 찍은 것으로 앞 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가르시아 마르케스이다.



사진 5. 가르시아 마르케스와 부인 메르세데스 바르차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학생 시절에 알게 된 메르세데스 바르차와 1958년 결혼했다. 그녀를 보자마자 운명적 사랑을 느껴서 고작 열세 살이던 그녀에게 결혼을 제의했다고 한다.



사진 6. 『프렌사 라티나』 사무실에서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문학 이외에도 저널리즘에 소명의식을 지니고 있었고, 다분히 사회 비판적인 글을 써서 종종 필화를 겪었다. 이러한 그의 성향은 아르헨티나 언론인 호르헤 리카르도 마세티(Jorge Ricardo Masetti)가 쿠바의 고위급 인사가 된 체 게바라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959년 만든 통신사인 『프렌사 라티나』(Prensa Latina)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61년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통신원으로 뉴욕에서 활동했고, CIA와 미국의 반혁명 쿠바인들의 감시와 협박으로 결국 멕시코시티로 이주했다. 그 후 죽을 때까지 주로 멕시코시티에 거주했다. 또 요주의 인물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수차례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다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비로소 다시 미국을 방문할 수 있었다.



사진 7. 『백년의 고독』 초판본(1967) 표지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대표작 『백년의 고독』(Cien años de soledad)은 마콘도라는 허구적 공간을 무대로 벌어지는 한 가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라틴아메리카 전체 현실을 절묘하게 포착하고 신랄하게 비판한 대작이다. 현재까지 40여개 언어로 번역되어 5,000만 부 이상 팔린 작품으로 우리 시대의 고전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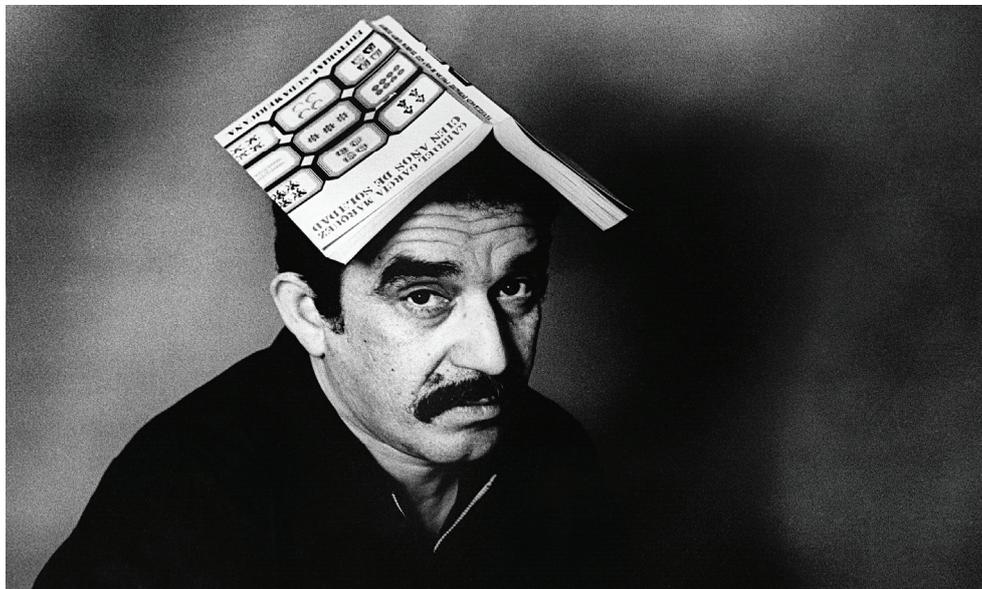




사진 8. '봄 소설'의 주역들

왼편부터 훌리오 코르타사르(Julio Cortázar, 아르헨티나),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카를로스 푸엔테스(Carlos Fuentes, 멕시코),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Mario Vargas Llosa, 페루)이다. 서구, 그리고 나아가 세계에 라틴아메리카 소설 봄을 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들이다.



사진 9. 가르시아 마르케스와 피델 카스트로

한 태도는 가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쿠바혁명의 열렬한 지지자였으며 평생 카스트로와 돈독한 교분을 나누기도 했다. 두 사람 관계에 대해서는 『카스트로와 마르케스』(예문, 2011)라는 책이 국내에 번역되기도 했다. 쿠바혁명의 성과가 퇴색되면서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이러한 태도는 가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사진 10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에 참석한 푸엔테스, 가르시아 마르케스, 몬시바이스(왼쪽부터)

흔히 FIL이라는 약자로 통용되는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Feria Internacional del Libro de Guadalajara)에 참석한 가르시아 마르케스. 1987년부터 과달라하라대학에서 연례행사로 개최하고 있으며 오늘날 스페인어권 최고의 국제도서

전이며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버금가는 위상을 지니게 된 데에는 카를로스 푸엔테스, 가르시아 마르케스 등의 기여도 컸다. 왼쪽이 카를로스 푸엔테스이고 오른쪽은 멕시코의 언론인이자 저술가로 한 시대를 풍미한 카를로스 몬시바이스(Carlos Monsiváis)이다.



사진 11. 마콘도로 돌아간 가르시아 마르케스:

멕시코 예술전당(Palacio de Bellas Artes)에서 거행된 장례식에는 멕시코 대통령과 콜롬비아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인사가 참석했다. 『백년의 고독』의 노란색 나비 떼 일화를 연상시키듯 노란색 일색으로 장례식장을 물들여 마콘도로 돌아간 가르시아 마르케스를 추모했다.



사진 12. 가브리엘 가르시아 문학관

2000년 3월 아라카타카에 개관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문학관 입구이다. 그가 열 살 때까지 살았던 외조부모의 집을 문학관으로 바꾸었다. 『백년의 고독』에서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 가문이 살았던 집의 모델이 바로 이 집이었다.



사진 13. 가르시아 마르케스 추모 학술회의

국내에서도 언론, 문학지 등을 통해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삶과 문학을 돌아보는 시도들이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이다. 사진은 지난 6월 3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한 추모 학술회의 포스터이다.

우석균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 교수